

메종 페리에 주에와 위니 할로우, 야성적인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풍부한 창의력으로 amfAR 갈라 칸 레드카펫을 초록 빛으로 물들이다

메종 피에르 주에는 고유의 아르누보 스타일과 창립자의 자유로운 영혼을 동력으로, 200여년 간 창의적인 자유로움과 자연을 관조하는 색다른 시각을 일구어왔습니다. 이 하우스는 샴페인을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그들만의 철학을 늘 고수해왔습니다.

멀티미디어 뉴스 공개를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550851-maison-perrier-jouet-winnie-harlow-cannes/>

이렇게 위니 할로우와 리차드 퀸이라는 두 예술가는 자연과 창의성에 대한 둘만의 대화를 통해 뭉쳤습니다. 리차드 퀸은 위니 할로우를 위해 메종 페리에 주에의 아르누보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은 호화로운 드레스를 꿈꾸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을 재구성한 생동감 넘치는 모티브가 정교한 수공예 자수로 장식된 독특한 드레스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드레스는 아르누보 양식의 거장인 예술가 에밀 갈레가 1902년 메종 페리에 주에를 위해 그린 가을모란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가을모란은 메종 페리에 주에의 상징이며, 매일 아침 새로운 마법을 걸어주는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생동감과 흡인력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놀라운 결과물은 그 격에 맞는 주목할 만한 행사에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위니 할로우는 5월 23일 열린 amfAR 갈라 칸에서 이 드레스를 입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